

일상생활에서 독서운동 이뤄져야

제14회 출판포럼 '학교 독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열려

지난 1일, 교육부와 한국출판금고가 후원하고 (재)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가 공동주최한 제14회 출판포럼이 <학교 독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행사에는 나춘호 회장과 윤청광 이사장을 비롯해 구학봉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김득순 대구 입석여중 교사 등 교육관계자와 김경희 지식산업사 대표, 강말실 사계절출판사 대표 등 출판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 독서교육정상화를 놓고 주제발표·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점이었다. 구학봉 심의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독서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 확대 ▲독서 지도교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독서교육 유인체계 부여 ▲우수도서 선정기준의 공유 ▲도서 유통구조의 쇄신 ▲민·관 공동 협력체계 구축 등 6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출판 인프라의 낙후성 때문에 단순히 우수도서를 선정하고 독서지도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출판계의 주장이었다. 현암사의 형난옥 주장은 "출판을 중요한 산업으로 인

식한다면, 먼저 편집자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전과 같은 관주도의 일회적인 독서운동을 경계했다. 창작과비평사의 고세현 전무 역시 "관 주도의 우수도서 선정보다는 민간기구에 의한 공신력 있는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구 심의관은 "도서관 기능을 보완하고 출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확충된 뒤에야 가능하므로 우선은 쉽게 할 수 있는 독서운동, 예를 들어 방과 후 독서모임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도서 선정에 대해서는 "우수도서 목록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게 안된다면 선정 후 독서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실사를 맡길 예정" 이라고 말했다.

또한 두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득순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 실제 학교 독서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정리했다. 김교사는 "모 여중 신입생 3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① 독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 '거의 관심이 없다' 83% ② 1일 독서시간: '거의 읽지 않는다' 81% ③ 한 달간

이날 포럼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점이었다.



지난 10월1일 열린 출판포럼.

의 독서량: '한 권도 읽지 않는다' 80% 등으로 나타났다"며 독서하지 않는 부모, 영상매체의 영향, 학교도서관의 역할 미흡, 도서선정의 어려움, 독서에 대한 인식 부족을 독서교육의 가장 큰 장애로 꼽았다. 이에 김교사는 개선방안으로 책에서 읽은 것들을 실제로 확인시켜주는 독서여행, 독서교육을 따로 떼어서 하지 말고 과학·수학 등 각 교과 과정에 맞게 관련서적을 읽는 독서시간 운용 등을 제시해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독서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월례 어린

이도서연구회 사무총장 역시 "먼저 교육정책상의 인식 전환과 함께, 타율적인 독서운동이 아니라 자율적인 독서가 일상생활을 통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현재 추진하는 독서교육정상화 방안이 또다른 일회성 관제행사에 그치는 게 아닌가는 출판계와 교육계의 의구심에 대해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출판계와 교육계 모두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독서교육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동의한 만큼 이후의 실천이 과제로 남게 됐다. — 김연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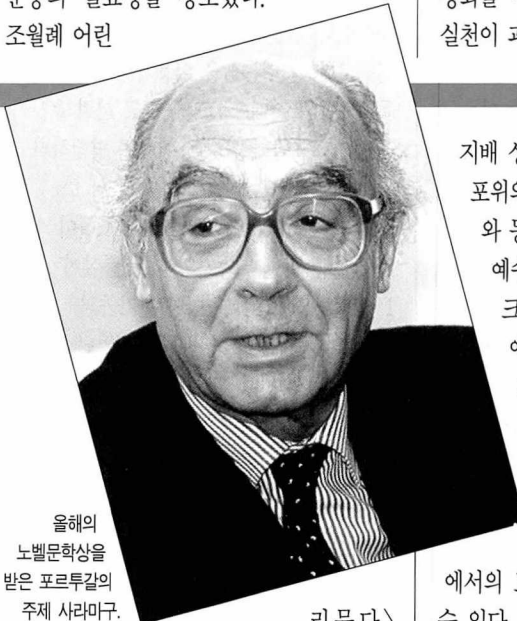
환상적 리얼리즘의 작품세계

98년 노벨문학상에 포르투갈의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마구(76)가 선정됐다. 해마다 10월 첫째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전통에 따라 지난 9일 발표한 한림원은 사라마구의 작품세계가 "상상력과 열정, 아이러니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환상적인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몇년째 꾸준히 후보로 올랐던 사라마구의 수상은 포르투갈 작가로서 최초이며, 셰이머스 히니(아일랜드) 심보르스카(폴란드) 다리오 포(이탈리아)에 이어 연속 4회째 유럽대륙에서 수상자가 나온 셈.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

스톡홀름에서 거행되며 사라마구는 760만 크로나(12억 9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1922년 리스본 근교 '아진야가'라는 소도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라마구는 작가로 성공하기 전까지 철공소 막노동의 일을 전전했다. 1947년 <최악의 땅>으로 문단에 데뷔한 사라마구는 41년에 걸친 우익 독재정권 안토니오 살라자르에 저항하는 열성적인 공산주의자로 활동했으며, 저널리스트로 일하며 시집과 희곡을 발표하기도 했다. 78년 살라자르 정권이 쿠데타로 전복되자 소설가로 변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쳐 82년에 발표한 과격적인 소설 <발타자르와 블



올해의 노벨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마구.

리문다)

로 주목을 받았다. 대중적인 명성을 얻은 작품은 <돌멩이>. 이베리아 반도가 초자연적 이유로 유럽대륙에서 떨어져 대서양으로 떠내려간다는 줄거리로 정치가, 특히 권력 정치가들을 풍자한 작품이다. 또 1147년 무어인에 의해 리스본이 함락, 피

지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그린 <리스본 포위의 역사>(89),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와 동거하고 십자가 처형을 두려워하는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린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가스펠송>(91), <무지에 관한 에세이>(95)에 이르기까지 30여권의 시집·희곡·소설을 발표했다.

마르케스에 앞선 환상적 리얼리즘의 대가로 평가받는 사라마구의 작품세계는 '현대사회에서의 고뇌'라는 일관된 맥락으로 요약될 수 있다. 92년부터 스페인령 카나리아 군도의 란자르트에서 작품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사라마구의 작품은 중국·일본 등 20여개국에 번역출간됐지만, 어렵게도 국내에 소개된 작품은 없다. 수상자 선정발표 직후 여러 출판사에서 에이전시를 통해 번역출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김지원 기자